

비구니스님들, 군장병 위문 나선다

전국비구니회, 5월 29일 기갑호국사서 군법회

대중과의 소통·봉사를 운영기조로 삼은 전국비구니회가 군포교 활성화를 위해 적극 나선다.

조계종 전국비구니회(회장 육문)는 5월 29일 오전 10시 경기도 포천시에는 1기갑여단 영외군법당인 기갑호국사에서 전국비구니회 사회부 1/4분기 군법회 및 자원봉사를 실시한다.

(종로노인종합복지관장)은 “이번 집행부는 대사회활동을 주요사업으로 정했다. 이에 맞춰 다양한 계층을 돕기 위해 꾸준히 봉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다”며 “군포교 지원은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출범한 제11대 전국비구니회 집행부는 출범 이후 취약계층을 위한 대사회적 활동에 나서고 있다. 첫 행보로 지난해 12월 말, 종로노인종합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점심배식봉사를 펼친 바 있다. 전국비구니회는 노인·군포교 외에도 앞으로 아동·청소년 등을 위한 활동에도 나설 계획이다. **윤호섭 기자**

“도전과 소통 위해 다양한 시각 가져라”

위덕대 '파워특강 비정상 회담' 개최 '눈길' 5월 18일 정진관서 신입생 및 재학생 대상

위덕대(총장 홍욱헌)가 5월 18일 정진관(체육관)에서 신입생 및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미래설계교정 '파워특강-새내기'와 함께하는 비정상회담'을 개최했다. (오른쪽 사진)



이번 행사는 인성기초교육원(배영호 원장)에서 신입생들을 위한 공동체 교양교육과정의 일환으로 대학생들 적응과 진로 및 인생설계 등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했다. 초청특강 강사로는 요즘 JTBC에 방영하는 비정상회담에 다니엘 린데만과 알베르토 몬디를 특강 강사로 초청해 '선언권과 문화갈등 극복하기' '5가지 선택과 도전' 등을 주제로 특강을 진행했다.

두 강사는 학생들이 '도전정신'과 '소통을 위한 다양한 시각'을 가질 것을 주문했고, 무순일을 하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배움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배영호 인성기초교육원장은 “앞으로도 새내기 및 재학생들을 위해 각 분야 명사들을 초청한 특강으로 학생들 개인이 갖는 잠재력을 조금씩 찾아 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주익 기자**

한국불교연구원 제2분기 불교특별강좌

6월 7일 개강, 8주간 수업

(사)한국불교연구원(원장 이태승)은 2016년도 제2분기 불교특별강좌를 6월 7일 개강해 8주간 진행한다.

강의는 2시간씩 진행되며 이태승 원장이 6월 13일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 7시 '산스크리트 금강경의 이해'를 직접 강의한다.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과 이은희 동방대학원대학 학부과정 강사가 월요일 오후 4시 '실답법자의 이해와 실습'을 강의한다. 또 김열권 마하위빠사나명상원 원장이 수

요일 오전 10시 '불교위파사나 전통의 이해와 실천'을, 최성규 한국현대불교미술협회 이사장과 유경자 한국미협 불교미술분과위원장이 화요일 오전 10시 30분 '불화의 이해와 실습'을 강의한다.

한국불교연구원은 “21세기 한국사회 일반인들의 지적 성숙과 불교의 대중포교를 위해 불교특별강좌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02)762-5624

노덕현 기자 nodoc@hyunbul.com

조계종, 교구 출가지도법사 운영 본격화

교육원 인선 마무리 단계... 5월 31일 첫 워크숍

올해를 '출가 진흥의 원년'으로 선포한 조계종이 행자 중도 퇴사자 감소를 위한 적극적 정책을 펼친다.

조계종 교육원(원장 현승)은 올해 하반기부터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본격 운영한다. 현재 교구별 '출가지도법사'의 인선은 마무리 단계에 들어간 상태다. 교구본사 20여 곳에 인선이 완료됐으며, 나머지 본사들도 5월 안으로 출가지도법사 위촉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교구별 출가지도법사는 비구 스님 1인, 비구니 스님 1인으로 위촉·구성된다. 이들 스님들은 자신의 교구본사에서 출가한 행자들을 지도하고 관리·상담의 역할을 맡는다.

조계종이 중단 사상 처음으로 교구별

출가지도법사까지 위촉·운영하는 이유는 중도퇴사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행자 생활 중 사찰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환속하는 인원은 약 20%이다. 막상 출가를 마음먹었지만, 자신이 생각했던 출가 생활과 차이를 느껴 다시 돌아가는 것이다.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중도 퇴사율을 줄이기 위한 조계종의 자구책이다. 이를 위해 교육원은 지난 1월 26일 열린 제43차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서 출가지도법사 제도를 보고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당시 교구본사 주지 스님들은 출가지도법사 제도에 공감하고 사업 진행에 공동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조계종 교육부장 진각 스님은 “예전 해인사에서는 '행자원장'이라는 소임

이 별도로 있었다. 오전에만 사중 소임을 보고 오후에는 행자들에게 강의와 상담 등을 진행했다”면서 “시대가 많이 바뀐 만큼 젊은 세대에 맞는 행자 교육 및 생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비구·비구니 스님 1인씩 임명
교구본사 20곳 위촉 완료해
교구 사찰 행자들 관리·상담
중도 퇴사자 감소 역할 기대

이어 “출가지도법사 제도는 행자들의 고민을 상담하고 낮은 사찰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라면서 “행자 중도 퇴사자들이 감소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조계종 교육원은 교구별 출가지도법사 운영에 앞서 전체 지도법사를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자리를 마련한다.

교육원은 오는 5월 31일 오후 1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국제회의장에서 출가지도법사 1차 워크숍을 연다. 위촉된 출가지도법사들이 모이는 이번 워크숍에서는 △중단 출가제도 및 사업 안내 △출가상담활동 방법 안내와 토의 △행자 퇴사방지 원인과 개선점 △교구 내 활동 방안 등이 논의될 예정이다.

류창무 교육원 연수팀장은 “일반적으로 행자 관리를 교무와 원주 스님이 맡는다. 시대가 변한 만큼 행자에 대한 전문관리가 필요하다”면서 “워크숍에서는 출가상담사 스님들도 참여해 상담기법 등에 대한 전문 강의를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미얀마 재난, 불자들이 보듬는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미얀마, 5월 12일 재난경감MOU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5월 12일,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미얀마 물레미안준 타운쉽(Myanmar Maylamyinegyun Township)과 MOU를 체결했다.

재난위험경감사업(Disaster Risk Reduction, 이하 'DRR사업')은 홍수, 태풍, 사이클론과 같은 자연 재해에 무방비로 노출된 마을 주민들의 재난 대응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한 환경 및 인식 개선 사업을 의미한다.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2016년부터 2017년 까지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매년 25만불 상당의 사업비를 지원받아 DRR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2016년 초 3차례에 걸친 지역 조사를 마친 재단은 사업 지역을 물레미안준 타운쉽 내 19개 마을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해당 지역은 바닷물이 강으로 직접 유입되는 지역에 위치한 강가마을이지만, 제대로 된 재난 대응 및 대피방법이 갖춰지지 않아 매년 자연재해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이번 협약은 마을 재난관리위원회조직, 조기경보 게시관설치, 모의 대피훈련 등 타운쉽 내 19개 마을과 15개 학교에서 재난 위험 경감을 위한 사업을 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자승)은 5월 12일, 재난위험경감사업 추진을 위해 미얀마 물레미안준 타운쉽(Myanmar Maylamyinegyun Township)과 MOU를 체결했다.

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이날 협약식에는 물레미안준 타운쉽 대표 및 교육청 관계자, 마을 활동가와 교사, 협력단체인 Share Ayeyarwaddy (셰어 아이라와디)와 BEDAR(베다르)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타운쉽 대표 우마우마우 씨는 “2008년 나르گی스 이후, 이렇다 할 대응 방안이 없어 지속적인 피해를 입어왔다. 이 지역에서 DRR 사업을 진행하게 되어 반갑고 고마운 마음”이라고 밝혔다.

협약에 앞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은 지역 재난 취약성과 주민들의 인식 조사를 위해 마을주민과 학생, 교사, 정부관계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했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조기경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마을 DRR트레이닝과 인식개선을 위한 학교DRR트레이닝, 대피소 건

축 및 긴급구호 물품 비치 등을 통한 환경 개선 사업을 운영할 예정이다.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의 상임이사 보경 스님은 “재단에서는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미얀마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 2014년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이번 프로젝트부터는 정부가 적극적인 참여의지를 밝히고 있어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조계종사회복지재단은 2014년부터 KOICA(한국국제협력단)와 민관협력 인도적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미얀마 지역에서 DRR사업을 추진해왔으며 재난 대피용 보트 제작, 대피로 유지보수 및 시설, 정수교육 등을 진행한 바 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달라이라마’ 방한위한 포럼 6월 2일 개최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인 달라이라마 방한 추진을 위한 국제포럼이 열린다. ‘달라이 라마 방한추진위원회’(공동대표 진옥, 금강 등)는 ‘달라이라마, 평화와 공존을 말하다’란 주제로 6월 2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에서 국제포럼을 개최한다.

포럼에는 달라이 라마, 티베트 고승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가르침을 받은 제프리 홉킨스 미국 버지니아대 명예교수, 이항순 조지아대 교수 등을 비롯해 국내 종교계 인사들이 참여한다. 10여년 간 달라이 라마의 통역·지술 활동을 도운 홉킨스 교수는 ‘달라이 라마와 함께한 나의 작업’이란 주제의 기조연설을 통해 달라이 라마의 삶과 사상을 전할 계획이다.

또 △이항순 교수의 ‘달라이 라마와 여성불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의 ‘인권문제와 달라이 라마’ △해방신학자 김근수 가톨릭프레스 대표의 ‘한국사회에서 종교의 역할과 달라이 라마 방한 의미’ △조성택 고려대 교수의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주제발표가 진행된다.

추진회는 지난 3월까지 총 11만 명의 방한 지지 서명을 받는 등 방한 성사를 위한 여건을 만들어가고 있다.

한편 추진회는 7월 2일 서울 봉은사에서 발대식을 여는데 이어 8월 말 인도 다람살라에서 열리는 법회에 참가하는 등 방한 준비 작업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노덕현 기자**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 -

정법빠리사 Dhamma Parisa 【108 선지식 구도순례】

도반 여러분!

금생에 몸을 받아 수행하는 것은 무량 복덕을 짓는 지량資糧입니다!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 법을 구하였듯이 국내의 선지식이을 찾아뵙고 선지식이 머무시는 도량에서 기도 정진하는 제4차 「108선지식 구도순례」법회 여행에 같이하지 않으시겠습니까!!

4차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 ◆ 일 정 : 2016년 5월 28일(토) 오후 2시
- ◆ 장 소 : 한국민족종교협의회(겨레얼살리기 연수회관 2층) (서울시 동대문구 답십리로 40길 14)
- ◆ 법 문 : 한양원 도정 (한국민족종교협의회 회장, 경쟁유도회 도정)
- ◆ 만남장소 :
 - 5월 28일(토) 오후 1시 30분 5호선 답십리역 1번출구 앞
- ◆ 108 선지식 구도순례 법회 동참 문의 :
 - 대 표 도 반 덕상 정은용 010-6894-2007
 - 운영책임도반 석준 이남재 010-5217-2878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격월에 한번씩 국내외의 선지식과 수행처를 탐방하여 1박 2일 철야정진하는 구도순례 프로그램으로 18년동안 진행되어 2033년 12월에 회향할 예정입니다.

- 108선지식 구도순례는 지계가 청정하고 바른 정정正正과 해안慧眼으로 세상을 통찰하고 수행과 자비행이 여일一如 선지식을 찾아 자신을 성찰하고 수행 정진하는 마음을 더 내고자 기획한 수행 프로그램이다.
- 구도순례에는 국내외 출세가 선지식뿐만이 아니라 타종교 성직자, 문화예술계의 장인으로써 수행과 예술을 겸비한 분들에게도 탐방할 예정이다.
- 그동안 1 ~ 3차 구도순례 선지식 친견과 철야 기도정진 법회는 오동선원(조실 대원 큰스님), 용문선원(선원장 의정 큰스님), 축서사(조실 무어 큰스님)에서 진행됨.
- 「정법빠리사 - 진리(佛法)에 귀의하는 평등수행공동체」는 그동안 제방 각지에서 참된 불자로 살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 하며, 신심을 고양해 왔던 재가자들이 모여 수행과 교육, 자비나눔 활동을 펴고자 2015년(불기 2559년) 10월 18일(일) 보광정사에서 창립법회를 갖고 결성된 바 있다.

도반님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 매주 일요일 오후 2시 보광정사(서울시 구로구 고척동 38-8 보광빌딩 7층)에서 108배 참회, 아미타 기도, 참선, 능엄경 등 경전 공부와 기도법회.
- 격월로 수행기운이 좋은 수행도량을 찾아 철야 기도정진 진행.



정 법 빠 리 사 Dhamma Parisa